



2026-7 월, 뿌갈빠와 오지 마을 교회들 소식

박정화 선교사

7 월말, 호산나 학교가 두 주간의 방학기간을 갖는 동안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정글지역 교회방문을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오지 지역들이 많은데, 뿌갈빠 시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직접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있지만, 거리가 멀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정글 지역은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소통하고, 날씨가 학교 사역 중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찾아서 방문하여 집중 강의나 강습회를 통해 형제들 스스로 예배와 말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합니다.

브라질과 페루 국경 근처의 원주민 마을인 둘세 글로리아(Dulce Gloria) 교회는 그 마을의 학교까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가 다시 개학하는 8 월 말에 방문을 하기로 준비를 하며 소형선교비행기를 운영하는 SAM 선교회(South America Mission)와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방문이 가능하고, 이번 방문에서는 교회지도자로, 설교자로 말씀 훈련을 받기 위해 뿌갈빠로 나와서 3 개월간의 인텐시브 코스 첫 공부과정에 들어갈 이랑(Iran) 형제와 그 가족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 둘세 글로리아 마을 교회, 아이를 안고 있는 이랑 형제와 그의 가족들 >

계속해서 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꾸리마나(Curimana) 지역의 누에보 엔칸토(Nuevo Encanto) 교회는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25 일 토요일, 오후 1 시경까지는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아침 8 시에 뿌갈빠를 출발하였지만, 길이 험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오후 4 시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 전 날에 비가 와서 진흙구덩이로 바뀐 구간을 마주칠 때마다 자동차가 미끄러져 진흙 속으로 빠지는 것이 두려워 한참씩 서서 머뭇거리다가 지나가는 다른 자동차들(늘 그곳을 운행하는 차체가 좀 더 높은 오프로드 SUV 들)이 남긴 바퀴자국들을 좇아 느린 속도로 어렵게 산 길 비포장도로를 넘어서야 했고, 그나마 중간에 엔진의 타이벨트에 문제가 생겨 자동차가 멈춰서는 일도 생겼습니다. 주의 은혜로 어찌 어찌 그 시골에서 만나게 하신 소형 모터 정비공을 통해 험거워져 빠져나온 타이벨트를 가까스로 다시 끼워넣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운 루스(LUZ) 부인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그곳을 떠났고, 자동차 텐서서에 문제가 생긴 것도 몰랐던 저의 무지로 다시 겁없이 그 자동차로 산과 강을 건너며 3 박 4 일의 방문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누에바 엔칸토의 에스페피나(Estefina) 자매와 다리오(Dario) 형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삶의 거주지를 옮겨가는 곳곳 마다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정글지역 산꼭대기 개간지 마을에서 카카오를 재배하며 삶의 터전을 세울 때 자신의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기도처로 구별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그곳에 작은 교회 건축물을 세운 부부였습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전에 살던 알리안사 후베닐(Alianza Juvenil) 마을에도 그렇게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도착한 첫날에는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마을 사람 대다수가 모이는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회를 예정하였지만, 어차피 저희의 목적이 전도였으니 마을집회에서 초청해 준 것이 더욱 감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날은 주일이어서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특별집회를 인도하며 성경개관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과노라마 강의를 진행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10 여명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이틀 동안의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모든 날 동안 에스테피나 자매는 형제들을 위한 식사를 계속 준비하여 제공하였고, 뿌갈빠에서 함께 갔던 빠뜨리시아(Patricia) 자매는 주방에서, 디그노(Digno) 목사는

말씀 사역으로, 요한 풀(Johan Pool) 형제와 호산나 졸업생인 아를레스(Arles) 형제는 프로젝터와 기타 반주로 함께 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반 전기선이 닿지 않는 오지이지만 작년부터, 몇 안되는 교회 형제들이 힘을 모아 교회에 태양광 열판을 설치하고 밤 예배를 위하여 전기 발전기까지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성경비디오를 함께 보며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리고 작은 교회들이지만, 작은 오지 마을 속에서 목회자 없이도 주를 향한 열심과 사모함으로 예배당을 찾는 그들을 주의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이름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듯 마을과 교회를 온 맘 다해 섬기는 '에스테피나와 다리오'와 같은 형제들이 주의 위로와 평강가운데 더 든든히 믿음으로 서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짧은 10 여일의 학기말 방학을 마치며, 7 월 30 일부터 시작되는 호산나 학교의 교사 연수로 NUEVA ENCANTO에서 돌아와서는 하루를 쉰 후 바로 학교



일정으로 돌아왔고, 8월의 첫 월요일인 3 일부터 학생들의 2 학기 수업이 시작되어 이제 첫 주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학생들이 돌아오니 학교는 다시 작고 맑은 소리의 새들의 지저귐같은 즐거운 소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 인사말을 자기 목소리에 담아보는 것이 즐거운 듯, 제 사무실 옆, 초등 3 학년 알파반 아이들이 계속해서 제 방을 기웃리며 저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옵니다.



학교생활에 틈을 많이 보이는 중고등 학생들은 첫 주간부터 조화로운 학교 공동생활, 소통과 존중을 통해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성경을 읽으며 함께 나누고, 초등학생들은 오늘 이번 학기 첫 예배를 드리며 유다 왕들의 이야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의 운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들으며 왕의 자녀들로서

필요한 영적 태도와 성품을 찾아 실천할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치원의 여섯 반의 어린이들도 12 명의 교사들과 함께 여전히 즐거운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호산나 학교가 세워진지 34년 쯤을 지나고 있고,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8 월에는 유치원과 초등의 기관 방문학습, 중등 중심의 과학 축제 박람회가 있고, 9 월에는 고등학교 졸업반의 수학여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 월 둘째 주간은 호산나 개교 34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주간이어서 학생들은 성경적 통합학습과 각종 행사들과 특별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의 성경 주제는 요셉의 삶을 통해 만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교사인 앙헬라(Angela) 선생님은 벌써부터 학생들이 그 주제를 준비하여 나가도록 사무엘서를 통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학생들과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탱하며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호산학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2026 년 8 월 첫째 주간에,

페루 아마존 뿌갈빠에서 박정화 선교사 드립니다.